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지고 말 것을(散りぬるを)」론*

- 사건의 기록과 진술, ‘합작’이라는 소설쓰기 -

정향재**
hyang39@hnu.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합작’이라는 방법의 소설 |
| 2. 「지고 말 것을」과 범죄사건 | 5. 맺음말 |
| 3. 진술과 기록, 그리고 소설 | |

주제어: 가와바타 야스나리(Kawabata Yasunari), 범죄소설(crime fiction), 합작소설(collaborative novel), 기록과 진술(records and statements), 소설론(novel discussions)

1. 들어가며

1930년대의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실로 다양한 문학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신심리주의에 심취해 「수정환상(水晶幻想)」(1931)을 발표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끊고 인간 혐오 속에서 새와 동물들과 살아가는 남자를 그린 「금수(禽獸)」(1933), 무용을 관람하며 그 관람기와 무용을 소재로 한 소설 「조선의 무희 최승희(朝鮮の舞姬崔承喜)」(1934), 「꽃의 왈츠(花のワルツ)」(1936), 자신의 문학의 출발을 돌아보고 방향을 제시하는 「문학적 자서전(文學的自叙伝)」(1934), 영화와 관련된 소재와 방법을 도입한 「미나카미 정사(水上心中)」(1934)와 같은 작품들을 창작하고 있었다. 그러는 중, 한편으로는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범죄를 소재로 한 작품들도 발표하게 된다. 이 시기에 발표하는 범죄를 소재로 한 소설들은 가와바타의 창작방법으로는 드물게 실제의 ‘기록’에 기초하여 소설을 써내려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특성을 띠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오니구마』의 죽음과 춤추는 아이(「鬼熊の死と踊子」)(1930), 「그것을 본 사람들(それを見た人達)」(1932), 「서툰 연극(田舎芝居)」(1935)등으로 들 수 있다. 이들 소설은 모두가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수사기록이라는 객관적인 기록을 기초

* 본 논문은 2014년 한남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2014A247)

** 한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로 하고 있다. 「지고 말 것을(散りぬるを)」(1933~1934)도 이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으면서 재판기록을 기초로 창작된 작품²⁾이다. 이러한 범죄를 다루고 있는 소설들을 가와바타 작품에서 ‘범죄소설’로 불리우기도 한다.

그러고 보면 가와바타의 작품들은 이 시기의 작품 이외에도 범죄, 혹은 범죄의 범주에 들어갈 법한 행위가 소재가 되는 작품들이 자주 등장하곤 한다. 손바닥 소설에서의 소매치기가 소재가 되는 「일본인 안나(日本人アンナ)」(1929)와 「스무 살(二十歳)」(1933), 아사쿠사의 불량소녀들 무리의 일상을 그리고 독약을 입에 머금고 입맞춤을 통해 상대를 위해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아사쿠사 홍단(淺草紅団)」(1929~1930)이 있다. 후기에 들어서면 중심소재가 범죄는 아니지만, 소재까지 생각한다면 넓은 의미에서 그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작품들이 등장한다. 자기도 모르게 여자의 뒤를 쫓고 마는 ‘스토킹’과 소매치기 등이 등장하는 「호수(みずうみ)」(1954), 외딴 집에 젊은 아가씨들을 수면제로 재우고 노인 남성과 하룻밤을 지내게 하는 「잠자는 미녀(眠れる美女)」(1960~1961)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작품 들은 가와바타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로, 범죄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 지기보다는 인물을 설명하기 위한, 혹은 전체적인 소설의 전개를 위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지고 말 것을」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지고 말 것을」은 가와바타의 작품 중에서 크게 주목받은 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특별한 창작의 기법을 가지고 있고, 작품에 등장하는 사건기록의 독자이면서 창작자인 소설가 ‘나’의 입장과 가와바타의 입장이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이 작품을 통하여 소설 작법의 하나의 새로운 방법의 모색을 시도하였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지고 말 것을」을 대상으로 가와바타가 시도한 새로운 소설 작법인 사실기록에 기초한 소설이 어떻게 전개되고, 여기에 남아있는 재판기록과 범인의 진술이 어떻게 소설 창작과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1927년 7월 내무성 경보국에서 발행한 『경찰연구자료 제14집 수사실례집(警察研究資料第14輯 捜査実例輯)』에 수록된 수사기록

新城郁夫(1993)「<小説>論のなかの『散りぬるを』—川端の犯罪小説—」『立教大学日本文学』70, p.109

2) 고바야시는 실제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 등을 기초로 쓰여진 일련의 범죄관련 소설들을 <실록적 범죄소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小林芳仁(1995)「川端康成の実験的犯罪小説」『十文字国文』, pp.1-24

2. 「지고 말 것을」과 범죄사건

「지고 말 것을」은 1933년 11월부터 1934년 5월까지 3회에 걸쳐 발표되었다. 처음 부분은 「지고 말 것을」이라는 제목으로 『개조(改造)』(1933.11)에 발표되고, 두 번째 부분은 「다키코(瀧子)」(1933.12)로 『문학계(文学界)』에, 마지막 부분은 「악한(通り魔)」(1934.5)으로 『개조』에 발표되었다.

첫 부분인 「지고 말 것을」은 ‘나’가 마련해준 집에서 살던 다키코와 쓰타코(鳶子)가 범인인 야마베 사부로(山辺三郎)에게 살해된 사실과 경위가 감정인 청취서 속의 사부로의 진술을 축으로 하는 재판기록의 인용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소설가 ‘나’의 사건에 얽힌 심리 등이 자문자답의 독백 형식으로 끼어들어간다.

처음 발표 시 두 번째 연재 부분인 「다키코」는 살해된 두 아가씨와 나의 관계, 그 중에서도 다키코와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 다키코는 소설가 ‘나’와 제자관계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은밀히 애정을 품게 된 사연과, 그녀의 살해 현장을 찍은 사진에서 느껴지는 넘치는 생명력 등에 대한 내용이 전개된다.

마지막 부분인 「악한」은 첫 번째 연재에서 다루었던 야마베 사부로의 진술과 정신감정인의 기록 등이 축이 되는 재판기록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서 한 사건의 같은 상황에 대한 진술, 기록의 차이에 대해 주목하며 결국 재판에 관한 기록은 야마베 사부로와 재판부, 경찰에 의한 이른바 ‘합작’임을 인지하게 되고, 이는 자신이 창작하는 소설의 방법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지고 말 것을」은 하나의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기록을 기초로 하고 있다. 가와바타는 이 작품을 비롯한 몇 개의 작품에 대한 전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범죄조사의 실제기록에 기초하여 나는 이 이외에도 「지고 말 것을」 『오니구마』의 죽음과 춤추는 아이」등을 썼다

犯罪調査の実例記に基づいて私はこのほかにも「散りぬるを」「『鬼熊』の死と踊子」などを書いてゐる
(岩波文庫版『抒情歌・禽獣』あとがき, 1952.6)

이것은 한 범죄기록의 윤색이다. 아직 정당한 비평을 받고 있지 않는 것 같다.

これは或る犯罪記録の潤色である。まだ正当な批評を受けてゐないやうに思ふ。³⁾

3) 川端康成(1940)『新日本文学全集 川端康成』<あとがき>, 改造社

위에서 말하는 범죄조사의 ‘실제기록’은 살인 사건에 관한 재판기록을 가리키는 것이다. 기존의 「지고 말 것을」에 대한 연구는 가와바타의 위의 자신의 작품에 대한 창작 경위를 나타난 표현에서 출발한다. 즉, ‘실제기록’에서 촉발하여 실제 사건과 기록을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고 말 것을」에서 그려진 두 아가씨를 살해하는 사건이 실제 있었던 일이며, 가와바타가 당시 신문 등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었던 기사를 참고하였음을 고바야시 요시히토(小林芳仁)⁴⁾는 작품과 당시 신문기록 등을 통해 면밀한 비교를 통하여 밝혀내었다. 이 연구에서 고바야시는 소설의 기초가 되는 살인사건은 1928년 8월 1일 새벽, 도쿄도 요츠야구 신주쿠 1초메(東京都四谷区新宿一丁目)에서 발생한 <여성 이발사 2명 교살사건>임을 규명해내고, 신문기사 보도와 실제 사건과 작품의 조응에 관하여 상세히 고찰해 내었다. 고바야시의 연구는 가와바타가 실제 있었던 사건의 신문 보도 등의 미디어를 접하여 그것을 기초로 하였다는 것이다.

고바야시의 연구 이후에도 실제 사건이 <여성 이발사 2명 교살사건>이라는 바탕 위에 당시의 신문기사뿐 아니라, 오히려 사건에 대한 재판, 경찰, 정신 감정사 등의 기록을 담은 작품의 전거가 되는 것은 특히 범죄사건의 기록을 모은 서적인 『병적 살인의 연구(病的殺人の研究)』⁵⁾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가타야마(片山)는 이 서적의 목차와 내용을 하나하나 제시하며 등장 인물의 성명과 약간의 설정을 다르지만 많은 부분이 『병적 살인의 연구』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왔음을 밝혀내어 전거가 있는 범죄소설로서 규정지었다. 7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이 서적에는 범죄심리 증상별로 죄를 구분⁶⁾해 놓고 그에 관련된 기록을 신고있는데, 「지고 말 것은」은 7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변질자 세 번째 - 2명 살인 = 무기징역>의 항목에 해당한다.

가와바타가 『병적 살인의 연구』에서 수사기록, 공판 기록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작품에

4) 小林芳仁(1995)「川端康成の実験的犯罪小説」『十文字国文』, pp.1-24

小林芳仁(1993)「川端康成の実験的犯罪小説 二 - 「散りぬるを」その事実と虚構の美学-」『国文学 解釈と鑑賞』至文堂, pp.172-183

5) 필자는 기쿠치 진이치(菊地甚一)로, 1931년 남북서원(南北書院)에서 간행하였다.

기쿠치는 이 이외에도 『사상범죄의 제문제(思想犯罪の諸問題)』(1934), 『실례 해설 범죄심리(実例解説 犯罪心理)』(1934), 『범죄감식편(犯罪鑑識篇)』(1935), 『심신상실론(心神喪失論)』(1935), 『범죄심리연구(犯罪心理研究)』(1940) 등 다수의 범죄심리 관련 서적을 남기고 있다.

6) 片山倫太郎(1999)『「散りぬるを」における典拠と位相』『川端文学の世界 1 - その生成』勉誠出版, pp.277-303

7) 『병적 살인의 연구』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를 통하여 이 서적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의 성향 및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

「序」, 「緒言」 「少年強盜未遂」 「酉酒」 「陪審」 「變質者 その一 體質性神經衰弱一意志薄弱性 その二 ひてすりその三 二人殺し=無期懲役」 「憂鬱病=幻覺」 「妄想=ぱらのいあ」 「親子心中 その一 緊張病(夫と子供を殺した女=免訴 その二 憂鬱病=免訴 その三 (母を殺した孝行息子)=心理耗弱者)」 「三人札殺傷(變質者)=死刑より無期懲役」 片山倫太郎, 앞의 논문, p.279

반영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은 『병적 살인의 연구』가 「지고 말 것을」에 끼친 영향은 사건에 관한 객관적 사실 그 자체 만에 머물지 않는다. 소설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양식적 특성을 포함해 작품의 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가와바타가 『병적 살인의 연구』를 가져와 「지고 말 것을」을 창작한 것에는 어떤 방향성을 의도한 것인가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병적 살인의 연구』는 범인의 자백 청취, 정신 감정 기록, 형사·검사 등의 조서와 재판기록 등을 병렬로 검토하는 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것을 가져온 「지고 말 것을」은 그 기록들 안에 내재된 허구성, 즉 소설성을 집요하게 반복함으로써 문학이 지닌 특성의 부각에 그 방향성을 두고 있으며 그것이 이 작품의 창작 의도와도 연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진술과 기록, 그리고 소설

「지고 말 것을」이라는 소설은 그 바탕에 실제 재판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은 이미 밝혀진 대로이다. 「지고 말 것을」은 살인사건을 일으킨 범인을 찾아가는 소설이 아니다. 이미 살인이 일어났고, 그 범인으로 야마베 사부로가 지목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일상에서 어떻게 일탈이 찾아오고 어떻게 살인으로 이어지는가,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는가의 순서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한 시점에서, 즉 사건의 결말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탐정소설과도 같은 스타일의 작품⁸⁾이라고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의 첫머리가 바로 살인 장면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며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고 말 것을」은 흥미롭게도 실제 사건을 배경에 두고 있으면서 현실의 사건을 그대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작품에서의 시점은 살인사건이 있었던 5년 후로 설정되었다. 작품이 발표된 시점(1933년)에서 5년이라는 시점으로 실제 있었던 살인사건(1928: 여성 이발사 2명 교살사건)과의 시기 및 내용상의 밀착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그 반면에 5년이라는 시간은 허구가 개입할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키코와 쓰타코가 야마베 사부로에 의해 살해된 이 사건은 두 아가씨가 모두 사망하였기

8) 新城郁夫(1993)「《小説》論のなかの『散りぬるを』—川端の犯罪小説—」『立教大学日本文学』第七十号, p.110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의 진술은 들을 수가 없다. 범인 야마베 사부로는 당시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의 진술은 경찰조서와 재판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었던 야마베 사부로는 옥사하고 만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경찰조서를 비롯한 재판기록뿐이었다. 물론, 그 재판기록 안에는 야마베 사부로의 진술과 심문, 재판시의 문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소설은 범죄를 다루고 있지만 범인을 찾아가는 소설이 아님은 앞에서도 기술했다. 오히려 범죄의 경위와 살해자의 심리를 쫓아가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작품의 첫머리는 죽을지도 모르면서 모기장 속에서 평온히 잠들어 있었던 다키코와 쓰타코, 그리고 특별한 이유없이 사부로가 살인을 범한 진술이 서술되어 있다.

살인에 관한 경위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재판기록이 있는데 그 중 많은 부분은 범인 야마베 사부로의 진술이 차지한다. 그런데, 야마베 사부로는 살인동기를 시종일관 두 아가씨를 ‘놀라게 해주려고(おどかしてやろうと思つて)’라고 말하고 있고, 범행 당시의 기억에 대해서는 ‘모르겠다(分からない)’이거나 ‘그럴지도 모르겠다(かもしれない)’는 등 늘 애매하고 몽롱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살인사건 이후의 기록인 재판기록 뿐이어서 피해자인 다키코와 쓰타코의 심정은 들을 수가 없는데, 그 대신 소설가 ‘나’에게 두 아가씨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다. 소설에 전개된 ‘나’와 두 아가씨와의 관계와 내가 품은 다키코에 대한 애정은 다분히 소설적인 요소가 강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의 서두 부분은 다키코와 쓰타코의 살해 사실로 시작되어, 범인의 상황, 그리고 소설가 ‘나’가 이 사건에 주변인물로 개입하면서 느끼는 황당함과 허망함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 부분에서 ‘나’가 「지고 말 것을」에서 이야기되어야 하는 부분이 예고되어 있다고 하겠다.

다키코와 쓰타코가 한 모기장 안에 잠자리를 나란히 하고 누워서도 두 사람 다 자신들이 죽임을 당할 것도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다. 적어도 분명하게는 잠을 깨지 않았다. — 나는 것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해자 야마베 사부로도 재작년에 옥사하고 이미 사건에서 5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보니 나를 일종의 어이없는 허무감에 빠뜨리기 보다도, 오히려 일종의 육체적 유혹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녀들의 유골도 수습하면서, 그녀들의 육체를 재로 화하기 위하여 화장장의 가마에 전기로 불을 지피는 우웅하는 굉음도 들었는데, 아가씨들의 젊음은 역시 내게서 사라지지 않는다. 제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지금도 나는 눈 앞의 그것을 붙잡으려는 생각에 휩싸이는 일이 있다.

瀧子と薫子とが蚊帳一つの中に寢床を並べながら、二人とも、自分達の殺されるのも知らずに眠つてゐた。少くともはつきりとは眼を覚まさなんだ。—— といふことは、無期懲役を宣告さ

れた加害者山辺三郎も一昨年獄死し、もう事件から五年も経た今となれば、私を一種の阿呆らしい虚無感に落すよりも、むしろ一種の肉体的誘惑を感じさせるのである。私は彼女等の骨も拾つてやつたこととて、彼女等の肉体を灰にするために、火葬場の釜へ電火の入る、ごおうといふすさまじい音も聞いたのであるが、彼女等の若さは、やはり私から消え去らない。うつかりすると、今でも私は目の前のそれをとらへようとする思ひにかられてゐることがある。9)

이 부분에는 「지고 말 것을」에서 전개될 살인사건에 관련된 것은 물론,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이기도 했던 다키코에게 느끼는 정감과 그녀의 살해 현장사진에서 보게 되는 육체의 젊음, 그녀들의 사후 처리를 맡으며 떠올리는 기억과 회한이 응축되어 있다.

다키코와 쓰타코를 살해한 것은 아마베 사부로로 범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단지,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며, 범행 동기에 대해 황당한 이유를 대고 있다. 단지, 두 아가씨를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였다고 하는 것이었다. 재판부의 법관은 아마베 사부로의 정신감정을 받게하고 그 결과 정신적인 미약자인 ‘변질자(変質者)’라는 판정을 내린다. 하지만 그의 정신 상태가 몽롱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확실한 기억을 하지 못한 변질자라고 해서 그의 범행이 경감되거나 하지는 않았다.

사부로는 정신 감정을 의뢰받을 정도로 광기를 의심받은 것은 살인에 대한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것과 단도로 다키코를 찌를 때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부로의 증언과 현장에서 읽혀지는 두 아가씨의 전혀 반항이 없었던 부분에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정황을 의심받는다. 하지만, 정신감정의 결과 지능에서는 우수함을 그 이외의 일반지식, 계산능력, 논리 선택, 문장완성 등에서는 표준점을 받고, 기억력에 있어서도 표준과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부로는 살인 시점과 그 이후 그 집에서 나오기까지의 기억이 몽롱하였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정도의 ‘정신이상적인 우연’을 인정하여 변질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나는 소송기록을 읽어 내려가며, 몇 가지의 같은 건에 대한 기록이 대개는 비슷하게 기술되어 있으나 차이가 있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

검사에게도 예심에서도 공판정에서도 아마베 사부로는 범행의 정황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경찰의 청취서와 대동소이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이는 나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그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기 때문에

検事にも、予審でも、公判廷でも、山辺三郎は犯行のありさまについて、右のやうな警部の聴

9) 川端康成(1999)「散りぬるを」『川端康成全集』第5巻, 新潮社, p.283
이하, 본 작품에서의 인용은 페이지 수만 기입한다.

取書と大同小異の陳述をしてゐるが、この場合の小異は私にとって、なかなかその意味するところが小さくないので、 (298)

그러나, 야마베 사부로 의 <진실된 있는 그대로의 정직함>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진실된 있는 그대로>였던 부분도 많았던 것일 것이다. 검시, 현장검증, 증거품, 조사의 추정 이 사부로에게 거짓 말을 하게끔 작용했을 것이다. 그의 진술이 그때마다 다소간 다르다. 그 차이는 몇 사람의 심문자의 마음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しかし、山辺三郎の「真実ありのまま真正直」は、あなたまかせの「真実ありのまま」だつたところも多いだらう。検死や、現場臨検や、証拠品や、取調べの推定が、三郎に嘘を言はせるやうに働きかけてもあるだらう。彼の陳述がその度毎に多少ともちがふ、その差は、幾人かの訊問者の心のちがひをうつしてゐるのかもしれないのである。 (301)

애초에 기록이라는 것은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진술이라 함은 ‘당사자·증인·감정인이 관계 사항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알리는 일’을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진술과 기록은 사실성과 객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살인사건의 대한 기록을 펼쳐 읽으며, 한편으로는 자신의 소설을 창작하고 있다.

야마베의 진술은 대개 어느 기록에서나 같은 부분이 있고, 기록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그의 의식이 선명했던 때의 진술은 대개는 같고, 의식이 몽롱했을 때의 진술은 기록마다 달라지는 것이었다. 전자를 대동소이(大同小異)에서 ‘대동’이라고 했을 때, 후자의 경우는 ‘소이’라고 하겠는데, 소설가인 내가 주목하는 것은 역시 ‘소이’부분이었다. ‘나’는 경찰조서, 예심 및 공판서류, 정신감정인에게 한 진술에서 서로 다른 여러 부분을 실제로 작품에서 열거하기도 한다.

그런데 의식이 선명한 놀라게 하려는 부분의 진술과, 의식이 혼탁한 살해 부분의 진술, 어느 쪽이 나의 마음을 끄는가? 말할 것도 없이 살해 부분 쪽이 소설가에게는 무한히 풍부한 세계일 것이다. ところが意識鮮明の嚇かしのくだりの陳述と、意識濁濁の殺しのくだりの陳述と、どちらが私の心を惹くか。いふまでもなく、殺しのくだりの方が小説家には無限の豊富な世界であらう。

(328)

기록된 진술 중에서 서로 다른 부분에 주목하고 읽어가던 ‘나’는 이 기록의 어긋나는 많은 부분은 사부로에 의해 만들어진 ‘소설’일 것이라는 추론을 이끌어 내게 된다. 사부로는 결코 자신의 죄를 경감받기 위하여 숨기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자신의

행위를 꾸미기 위해서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도 아니었다. 실제로 사부로는 몽롱했었고, 아침이 되어 우유배달부의 병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억이 혼미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살해 현장이 발각되고 거기에 따른 심문에 답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물음에 맞는 그때 그때의 답을 할 뿐이었다. 그 답은 묻는 사람, 질문의 방법에 따라 다른 진술이 되어 나오고 있었다.

“다시 한 번 묻겠는데 다키코가 상처를 보고 놀랐을 때, 쓰타코가 눈을 뜨고 이쪽을 보았기 때문에 소란을 피우면 곤란하다고 생각해 쓰타코에게 재갈을 물리고 양손을 묶어 넘어뜨려 놓고, 그리고 다키코의 목을 졸랐다. 조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인가?”

“경찰에서 조사 받았을 때 시체의 위치로 보자면, 아무래도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데라고 해서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もう一度訊くが、瀧子の傷口をみて驚いた時、薫子が目を覚してこつちを見たので、騒ぎ立てられては困ると思つて、薫子に猿轡をはめ、両手を縛つて転がして置いて、それから瀧子を絞めた。調書ではこうなつてゐるが、その通りか。」

「警察で調べられた時に、屍体の位置から見ると、どうしてもさうでなければならぬといふんで、さうしておきましたが、ほんたうは分かりません。しかし自分では、さうでなかつたと言ふことも出来ません。」 (291)

위와 같은 감정인의 문답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경찰이나, 검사국, 예심, 공판정에서의 진술, 즉 살인 광경의 상세하고 명료한 진술은 아마베 사부로의 소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右のような、鑑定人との問答がまことだとすると、警察や、検事局や、予審や、公判廷での自白、つまり殺人の光景の詳細明瞭な陳述は、山辺三郎の小説であるといふことが分かる。(291)

‘나는 여기에서 사실과 객관성에 근거하여야 할, 사건에 관한 재판 기록에 주관성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기록에 들어간 허구, 소설이라는 것이라고 느끼게 된다. ‘나’라는 화자는 사부로의 진술 전체에 얽혀드는 소설성, 즉 허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 데, 실제로 나는 아마베의 진술 중 다른 부분에 면밀히 주의하여 읽어나감으로써 그 차이를 규명하려고 한다. 또한, 그 소설은 아마베의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진실’임도 느끼게 된다. 아마베 사부로는 정신감정 결과 ‘변질자’라는 판정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살인에 대한 형량은 줄어들지 않고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을 그대로 받게

10) 仁平政人(2010)「川端康成『散りぬるを』論—「合作」としての「小説」」『日本文芸論叢』19, p.15

되는데, 그것도 이러한 그 나름의 진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만든 소설, 그것은 그때그때의 심문자의 의도에 따라 바뀌고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하여 소설「지고 말 것을」이라는 소설은 야마베 사부로에 의한 진술을 중심으로 하는 또 하나의 소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4. ‘합작’이라는 방법의 소설

‘나’는 소설가이다. 「지고 말 것을」에서 나는 전체를 소설 전체를 이끌어가는 화자이면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자는 아니지만 살인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참고인이라는 함은 살해된 두 아가씨 다키코와 쓰타코에게 집을 제공한 관계에서 이다. 또한, 다키코는 소설가를 지망하는 아가씨로 ‘나’의 제자이기도 하였다. 소설「지고 말 것을」은 실제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주변이야기를 삽입하여 소설을 만들어가는 소설가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사건에 관련된 관계자이기 때문에 기록들에 대한 열람이 가능했고 그것을 활용했다는 설정이다. 작품의 기초가 되는 것은 재판에 관한 몇 가지 기록이다. 즉, 경찰조서, 정신감정사의 기록, 예심조사기록이 그것에 해당한다. 이 기록들에는 경사 조사서, 정신감정서, 재판서의 야마베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나’라고 하는 소설가는 사실을 적어놓은 글들인 재판기록에 대한 ‘독자’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설을 써내려가는 ‘창작자’의 입장에 있다.

그 사부로도 옥사해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소송기록 뿐이다. 그 서류에서 내가 배껴 둔 부분은 청취서이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문답형식을 따라하게 되어,

“너는 왜 이런 걸 옮겨 적어 두었지? 이제와서 후회하지는 않는가? 즉시 태워버리면 될 걸.”

“그 당시에는 다분히 이 기록이 믿을 수 있을 만한 것이라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

その三郎も獄死してしまつて、残つてゐるのは訴訟記録だけである。その書類から私が写し取つておいた部分は、聴取書なので、私もそれを讀むと、自然と問答の形式を真似て、

「お前はなぜこんなものを書き写しておいたのか。今になつて後悔しないか。直ぐ焼き捨てたらいいだらう。」

「その当時は、多分にこの記録が信すべきものであるといふ気がしたかららしい。」 (291~292)

‘나의 소설은 내용상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아마베 사부로의 진술을 중심이 된 사건관련 이야기, 사건의 피해자인 다키코 및 쓰타코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창작하는 소설이다. 우선, 아마베 사부로의 기록을 살펴보던 중, 동기의 불명확으로 인한 광기를 의심받아 정신감정까지 받은 사부로의 진술이 살인 장면에 이르면 기억의 혼미에 의한 다른 진술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된다. 즉, 그의 진술은 그때 그때 그가 만들어 낸 ‘소설’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가 그렇게 소설을 만들게 된 배경을 쫓아가니 그의 진술이 달라지는 것은 그때 그때의 심문자에 의한 것임을 인지하게 된다. 즉, 경찰관이 물을 때, 검사가 물을 때, 법정에서 질문을 받을 때가 다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부로가 말하듯이 심문시에 주입된 것들, 혹은 같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에 의해 머릿속에서 만들어 진 것임을 인지하게 된다.

“그것이 지금 생각하니 어디까지가 정말로 내가 스스로 그 때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 때에 내가 한 일을 관리가 가르쳐 준 것인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이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인지 하나하나 명확히 구분할 수 없게 되어버렸는데요.”라든가

“경찰에서 네가 한 일은 이러이러 하지, 저러했을 것이다라고 주입된데다가, 예심이나 검사국의 조사에서 다시 같은 걸 몇 번이나 말하게 해서 지금은 그런 것들로 머릿속이 만들어져 버렸으니까.”라든가 감정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자면, 사부로의 소설에는 복병이 있는 것은 명백하다. 경찰관이나 재판관도 이 소설의 작가인 것이다. (밑선 필자)

「それが今考へますと、どこまでがほんたうに私が自分でその時のありさまを覚えてみたことなんでしょうか、取り調べの際に自分のしたことをお役人から教へられたりして、今頭にあるものが、この二つのうちのどつちだかー々はつきり区別出来なくなってしまうたんですけれども。」とか、

「警察で、お前のやつたのは、かうだつたらう、ああだつたらうと、教へこまれてをります上に、予審や検事局の調べで、またおんなじことをなんべんもしやべらせられて、今はさういふもので頭が出来てしまつてゐますから。」とか、鑑定人の告白してゐるところをみると、三郎の小説には伏兵のゐることが明らかである。警察官や裁判官も、この小説の作家なのである。

(291)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정신감정인에게 하는 사부로의 고백에서 자신의 진술의 많은 부분은 심문자들에 의해 만들어 진 것임을 토로하고 있다. 사부로의 진술을 ‘소설’로 지칭했던 ‘나’는 그 만들어진 진술을 하계한 검사, 경찰, 재판관 등을 이 소설의 작가라고 명명하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부로의 진술이 중심이 된 재판기록은 그 자체가 소설이며, 그것도 심문관들이 함께 참여한 ‘합작소설’이라고 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밝힌 바, 「지고 말 것을」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 소설창작 면에서 보면 야마베 사부로의 진술 및 기록이 ‘나’가 창작하는 소설의 ‘밑그림’이 되고 있다¹¹⁾는 파악은 수궁이 가는 한편, 당연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나’가 소설의 소재로 살인사건의 재판기록을 가져왔다는 내용상의 부분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실은 합작소설이라는 방법적인 면에서 더욱 더 바탕이 되는 요소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는 소설가로서 야마베 사부로와 관련된 살인사건에 소설가로서의 창작의 가능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야마베 사부로가 무기징역이 되었다고 해서, 나는 다른 의견을 주장하려고 생각지는 않는다. 재판관의 임무는 그 즈음에서 끝날 것이다. 그 끝난 즈음부터 소설가의 임무는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山辺三郎が無期懲役なつたつて、私は異論をとらへやうとは思はない。裁判官の務めは、そこからあたりで終わつてゐるのだらう。その終はつたところあたりから、小説家の務めは始まるのではないだらうか。(284)

우리들의 문학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부분,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모두 감상의 놀이일지도 모른다. 야마베 사부로의 경우에도 그 살인 동기에 재판관은 정신이상적인 우연 밖에는 인정하지 않은 듯하지만 나의 소설이라면 어쨌거나 그의 심리를 이유 없는 살인으로까지 몰고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われわれの文学の意味ありげなこと、したりげなことは、すべて感傷の遊びかもしれない。山辺三郎の場合でも、その殺人の動機に、裁判官は多少精神異常な偶然しか認めなかつたやうであるが、私の小説ならば、ともかくも彼の心理を、理由のない殺人にまで追い込んで行くことも、さまで困難なわざではないだらう。(284)

살인사건과 관련된 실제기록은 범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소설가, 혹은 문학에서는 그와 관련된 스토리를 생산하거나 살인의 이유와 관련된 심리를 이상심리 혹은 광기로 까지 끌고가서 작품의 다른 결말과 연결시키는 등의 방법도 생각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했다.

‘나’의 소설은 야마베 사부로의 진술을 중심으로 한 재판기록과 피해자인 다키코 등과 나와 의 관계로 축약된다. 이 내용 중에서 야마베 사부로를 둘러싼 이야기는 기록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부로가 죽인 다키코 등의 이야기는 완전한 ‘나’의 창작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 중 다키코가 소설수업을 원하는 상경 아가씨였고, 쓰타코는 사생아로 죽은 후 유골을 수습하

11) 新城郁夫(1993), 앞의 논문, p.113

러 올 사람이 없을 정도의 외로운 처지였다. 소설 말미에 이 소설이 쓰타코의 가족에게 읽혀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나’는 살인사건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쓰는 <나의 소설>이 진술과는 다른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자각한다. 그리고 이것을 세 사람(사부로, 다키코, 쓰타코)을 위해 지은 소설이라 생각하게 된다.

“진짜 장난이라고 믿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살해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반항 한번 하지 않고, 네 무릎을 베개 삼아 눕는 것 같은 그런 신이나 부처 같은 살해가 너한테 가능하잖나? 기적이야, 그건”
“뭐야, 그건 내가 세 사람을 위해 지어준 소설아냐?”

“그래? 소설이었나?”라고 악마가 물러가고 나자, 나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얼굴을 붉혔다. 이 한편은 소송기록이나 정신감정서에 의지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나 한 사람의 소설인가 하면 의심스럽다. 그러나 문장 곳곳에서 쓴 대로, 그 기록도 결국은 범인이나 법관, 그 외 사람들의 소설이기 때문에 나도 그들 합작자의 한 사람으로 덧붙여지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모두 인간이 하는 일이 지나지 않는다.

「ほんのたはむれだと信じて、息が止るまで殺されると思はず、さからひひとつもせず、お前の膝を枕に眠ってくれるやうな、そんな神仏のやうな殺し方がお前にできるかね。奇跡だ、それは。」

「なんだ、それはおれが三人のためにつくつてやつた小説ぢやないか。」

「さうか。小説だつたのか。」と悪魔に退散されてみると、私は省みて面を赤らめた。この一篇は訴訟記録や精神鑑定報告に負ふところがあまりに多い。私一人の小説であるかは疑はしい。しかし、文中諸所で述べたやうに、その記録も所詮は犯人や法官その他の人々の小説であるのだから、私もそれらの合作者の一人に加へてもらへばそれで満足である。いづれも人間わざに過ぎぬ。

(334)

결국, ‘나’는 사부로가 제각기 다르게 진술하며 만들고, 그 배경에 그 진술을 하게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소설의 합작자의 한사람이 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이 소설을 통괄·제어하는 창작자이기도 한 것이다.

‘나’는 살인사건에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서 그것을 ‘나’의 소설의 경우와 대응시켜보게 된다. 야마베 사부로의 진술이 ‘합작에 의한 소설’이라고 한다면, 나의 소설의 그야말로 합작 그 자체인 것이다. 살인사건 재판기록을 가져와 그 중에서 소설가로서의 눈을 가지고 주관성과 허구성을 엿히게 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또한 피해자인 두 아가씨와 나를 연결시켜 결국은 야마베 사부로의 사건과 나, 주변의 이야기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같은 ‘합작소설’인 아마베 사부로와 나의 소설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니헤이 마사토는 <나>의 소설>과 <사부로의 진술(=합작소설)>과의 차이를 ‘나’의 언어와는 다른, 제대로 타자의 언어와의 소통에 의해서 탄생하고 있는 ‘합작’으로서의 성격을 현저하게 보이고 있다고 했다. 「지고 말 것들」은 ‘나 한사람의 소설인가 하면 의심스럽다’라는 인용문에서 보았듯이 작자인 가와바타가 출발에서부터 전거가 있는 소설로서 그것을 ‘합작’임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는 ‘합작’의 의미를 천착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안에는 온전한 창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문학의 세계에 있어서 과연 어느 만큼이 작가 개성에 의한 진정한 창조일까. 표현의 수단이 되는 언어 그 자체도 인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결국은 타인의 대작(代作)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산천초목을 묘사하더라도, 실제 경치를 머리에 떠올리는 경우에는 물론, 공상에 의한다 할지라도 천지자연의 대작의 도움으로 그려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타인의 생활의 경험을 전문하여 재료로 한다면, 그것은 타인의 대작이다. 역사나 기록에 의한 작품도 전부다 대작인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쓴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개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 이상, 그 작품에도 대작적 요소는 침투되어 간다.

文学の世界に於いて果してどれだけが作家個性のまことの創造であるか、表現の具の言語そのものからして、人間の契約で成り立ち、つまりは他人の代作を移用してゐるに過ぎぬ。山川草木を描写するにしろ、实景を頭に浮かべての場合は無論のこと、空想によっても、天地自然の代作の助けで描いたと云へよう。他人の生活の経験を見聞して材料とすれば、それは他人の代作である。歴史や記録による作品も悉く代作である。自分の経験を書いても、絶対に個人の生活といふものが成り立たぬ以上、その作品にも代作的要素は潜入して来る。¹³⁾

1934년에 발표한 평론에서 모든 문학 세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 심지어는 언어조차도 빌려온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데, 「지고 말 것들」은 누가보아도 ‘빌려왔음’ 혹은 ‘합작’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창작되었다. 즉, 이 작품은 당시 가와바타가 고민하고 있었던 소설 창작의 방법 그 자체를 은유하고 있는 작품으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1930년대 초의 가와바타는 문체와 소설작법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한 시기였다. 신심리주의 기법을 도입하여 머릿속의 이미지를 활자화 하는 시도를 하였고, 모더니즘의 소설을 쓰는 가 하면, 육체의 표현인 무용을 문학으로 반영하였고, 타 장르의 예술(레뷰, 영화 등)을 글로

12) 仁平政人, 앞의 논문, p.21

13) 川端康成(1999)「俗論」(1934)『川端康成全集』第31卷, 新潮社, pp.225-226

표현하려고 그 방법적인 면에서 고민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특히 「아사쿠사 흉단」 창작 전후에 보이는 카메라와 펜의 표현방법, 카메라로 표현되는 것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토로한 것은 그 단적인 증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와바타는 이러한 고민을 통하여 작가가 겪어나가야 할 ‘언어와 투쟁’¹⁴⁾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지고 말 것을」에서 보이는 소설 작법이라고 한다면 ‘합작’이라는 방법이 가장 눈에 띈다고 할 수 있다. 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인용’이라고도 할 수 있을 터인데, 인용의 방법은 「금수」의 결말에서 16세에 죽은 편지를 그대로 가져오는 부분에서도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와바타의 소설을 일반적으로 비현실적, 몽환적, 신비주의적 작품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범죄를 소재로 하고, 그것도 실제사건의 범죄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창작한 일련의 실록범죄소설은 상당히 가와바타의 창작의 방법으로는 낯설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시기에 가와바타가 시도하였던 사실 기록을 기반으로 한 범죄소설의 창작은 가와바타 나름의 현실을 매개로하는 창작의 모색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중반까지에 걸쳐 범죄를 소재로 한 소설을 창작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 한 것은 일부의 범죄소설의 경우, 그 사건에 대한 실화 기록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지고 말 것을」의 경우도 실제로 있었던 살인사건의 기록을 전거로 삼고 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모두 세상을 뜨고, 남아있는 것은 재판에 관한 기록과 살인범의 진술에 관한 기록뿐이었다.

「지고 말 것을」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 범인을 찾아가는 이른바 ‘범인 찾기’가 목적이 아니라, 사건에 얽힌 동기 즉, 사건에 내재된 이야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기록에 의해 범인 야마베 사부로의 살인 동기를 추적해나가는 소설가 ‘나’는 그의 살인에 대한 기억과 기록이 사실과는 동떨어진 기록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야마베의 살인에 대한 기억은 확실한 것이 없다. 그리고, 재판 기록 자체도 사건 현장을 보고서 그 현장이라면 이러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정해 놓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기록에 의해 야마베의 기억은

14) 「映画に学ぶことは、結局言葉と戦ふことにほかならない。戦ふことは、言葉を生むことである」
川端康成(1999), 「文壇散景」(1930)『川端康成全集』第30卷, 新潮社, p.431

만들어진 것일지 모른다는 추론에 이른다. 즉, 아마베는 자신이 ‘그랬을 지도 안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하나의 살인 사건에 대한 기록은 애매한 기억과 현장에서 추론되는 당위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소설’임을 소설가인 ‘나’는 자각하게 된다.

소설가 ‘나’는 사실로 남은 재판기록을 통해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간 두 소녀, 동기도 확실치 않게 살인을 행한 살인자 아마베의 심리를 더듬어 봄으로써 살인에 대한 기록이 실은 사실과는 동떨어진 주위의 개입에 의한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그 때 아마베의 진술에 개입한 경찰, 검사, 재판관 등도 또한 작가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즉, 살인기록은 아마베의 기억에 의한 진술, 재판에 관여한 사람들에 의한 ‘합작소설’이었던 것이다. 살인기록을 ‘합작소설’로 본 나는 ‘나’의 소설의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고, 이 역시 나 한 사람에게 의한 소설이 아님을 자각하게 된다.

기록이라는 전거를 가지고 창작한 「지고 말 것은」은 작품 그 자체가 소설 창작에 대한 고민의 발로라 할 수 있는데, 1930년대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고, 진정한 순수 창작이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반영된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품은 현실세계와는 동떨어진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해지는 가와마타 야스나리의 현실과의 소통을 통한 창작 방법의 모색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볼 때 이 소설은 소설 창작에 대한 은유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川端康成(1999)「散りぬるを」『川端康成全集』第6卷, 新潮社
 _____(1999)「文壇散景」『川端康成全集』第30卷, 新潮社
 _____(1999)「俗論」『川端康成全集』第31卷, 新潮社
 片山倫太郎(1999)「『散りぬるを』における典拠と位相」『川端文学の世界 1—その生成』勉誠出版
 小林芳仁(1995)「川端康成の実験的犯罪小説」『十文字国文』
 _____(1993)「川端康成の実験的犯罪小説 二—「散りぬるを」その事実と虚構の美学—」『国文学 解釈と鑑賞』至文堂
 新城郁夫(1993)「『小説』論のなかの『散りぬるを』—川端の犯罪小説—」『立教大学日本文学』70
 仁平政人(2010)「川端康成『散りぬるを』論—「合作」としての「小説」」『日本文芸論叢』19

논문투고일 : 2014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7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7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7월 20일

〈要旨〉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지고 말 것을(散りぬるを)」론
- 사건의 기록과 진술, ‘합작’ 이라는 소설쓰기 -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중반까지에 걸쳐 범죄를 소재로 한 소설을 창작하고 있다. 「지고 말 것을」은 실제 살인사건의 기록을 전거로 삼고 있다.

이 작품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 범인을 찾아가는 이른바 ‘범인 찾기’가 목적이 아니라, 사건에 얽힌 동기 즉, 사건에 내재된 이야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소설가 ‘나’는 남아있는 재판기록을 통해 피해자인 두 소녀, 동기도 확실치 않은 살인자 야마베의 심리를 더듬어 봄으로써 사건 기록이 실은 사실과는 동떨어진 주위의 개입에 의한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그 때 야마베의 진술에 개입한 경찰, 검사, 재판관 등도 또한 작가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즉, 살인기록은 야마베의 진술에 재판에 관여한 사람들에 의한 ‘합작소설’이었던 것이다. 살인기록을 ‘합작소설’로 본 ‘나’는 자신의 소설의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고, 이 역시 나 한 사람에 의한 소설이 아님을 자각하게 된다.

A Review of Kawabata Yasunari’s *Tirinuruo*

- Writing a collaborative novel, by records of the case and statements -

Kawabata Yasunari wrote novels on crimes from the late 1920s to the mid 1930s. Something that should especially be focused on is the fact that, in some crime novels, actual records of that case were used as a background. In the case of *Tirinuruo*, real records on the murder case were used as a source.

Tirinuruo is not a story that focuses on finding the culprit in a crime, or ‘searching for a culprit’, but rather on the motive involved in the case, or in other words, the story inherent in the crime.

The novelist ‘I’ supposes that, through the trial records judged as a truth, both memories and records on the murder may compose the collaborative novel by tracing the mentality of two girls who died without knowing anything and Yamabe who murdered without a clear motive.